

민주 “핵폐수 방류는 제2 태평양전쟁...국민과 총력 투쟁”

이재명 “정부 ‘방류 문제 없다’ 입장 발표...국민 기만 책임 묻겠다” 여론전 통해 한·일 압박...26일 광화문서 시민사회단체 총결집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관련 총력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한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언을 해보겠다”며 “(방류 후) 7~8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오염수가 도달할 텐데, 총선 시기에 (정부가) ‘검사해보니 (방사성 물질이) 없네’라고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다했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쟁론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며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핵폐수 방류를 무기로 한 한국 바다 침략에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가 찬성하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권, 바다의 주권을 지키자는 데 반대하는 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연안국에 위협을 주는 제2차 태평양전쟁”이라며 “이를 막지 않으면 그 위협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 수위의 여론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폭우가 예보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단, 보좌진,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결합해 총결집대회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관심이 커진 강력범죄 예방 대응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체장을 맡은 지자체 및 전국 지역위원회에 산책로 등 다중 이용장소와 범죄 우려 지역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영장 청구 비회기에” 거듭 촉구

민주 최고위...“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 타격하려는 정치행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을 향해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된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을 전날 기소한 것에 대해선 “우리당을 탄압했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은 당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투기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날 밝힌 것에 대해선 “앞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느냐”라며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이재명 소환 통보...李 “당장 가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오늘 오전 출석 의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명남)는 제3차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복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

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 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상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히 시간을 낼 수 없다.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주기환 “광주 발전 위해 예산·법안 초당적 협력”

신임 광주시당위원장 “지역 목소리·현안 전달, 가교 역할할 것”

신임 주기환(사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22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당·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의 현안 사업이 상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요 법안 제정과 국비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초당적인 협력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탓에 내년도

광주시의 국비 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여당의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선 중앙당과 중앙 부처 장관들을 설득해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질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당에 전달하는, 지역과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광주가 호남 경제의 중심축인 만큼 광주가 호남 발전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광주도 경제가 아닌 경제가 우선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



는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로써 주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이끌며 2024년 총선까지 지르는 중책을 맡게 된다. 광주 광산에서 태어난 주 위원장은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지난해 3~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보수정당 역대 최다 득표율인 15.9%를 기록한 바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정흥군 안양면 수해해수욕장 (홀포해수욕장 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증용,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칠계면 강경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정 평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교차질 LED플라카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창로 인근 문화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적 접목한 이벤트 동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인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서기 2023년 07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7월 2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채권 금액이 있으시면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의 및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주식회사 바이오브리스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141 (용봉동)
청산인 이바울

해산 및 청산공고(1차)

본 회사는 2023. 08. 08.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주식회사 에프엠씨
광양시 중마로 560 202호(중동)
청산인 조요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한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의
1. 발전사업 개요
· 발전소 명칭: (유)지도상생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삼천포읍 지도읍 방항리 1698-7번지외 27필지(총 28필지)내(남향) 1698-10, 1698-8, 1698-9, 1699-11, 1699-12, 1699-14, 1699-16, 1699-18, 1699-2, 1699-4, 1699-5, 1699-9, 1700, 1700-11, 1700-14, 1700-16, 1700-18, 1700-2, 1700-20, 1700-7, 1700-9, 1701-4/광명리 1614, 1614-1, 1614-4, 1614-7)
· 발전소 면적: 418,460㎡
· 공고기간: 2023.08.24~2023.08.31(08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40,980kW
· 사업시행계획일: 2023년 08월
· 사업완료예정일: 2026.08.01~2046.08.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지도상생태양광발전 대표이사 홍인훈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3.08.24~2023.08.31(08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6253-8000 팩스: 02-6253-7777 E-Mail: help@soulineenergy.co.kr

공 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한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의
1.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 발전소 명칭: 신안 원은10/11/12/13호 발전소
· 발전소 위치: 신안군 자은면 대동리 340-7, 340-12, 340-16, 340-63, 340-64, 340-88 및 신안군 자은면 원은리 759,760,762,763,764,765,766,767,768,773,774,777,778, 779,779-1,781,782,791,792,793,794,795,796,797,819-2
· 발전소 면적: 100,611㎡
· 공고기간: 2023.08.24~2023.08.30(07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의향)은10호: 2,999.75kW (의향)은11호: 1,999.50kW (의향)은12호: 2,999.50kW (의향)은13호: 2,999.50kW

· 사업시행계획일: 2024년 12월
· 사업완료예정일: 2024.08.01~2044.07.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의향)은10호 대표이사 정연철 (☎010-9281-2318)
· (의향)은11호 대표이사 김현식 (☎010-3406-0182)
· (의향)은12호 대표이사 정연철 (☎010-9281-2318)
· (의향)은13호 대표이사 류영준 (☎010-4545-5140)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공고(1차)

당 법인은 2023년 6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7월 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당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장덕동)
청산인 최대범 (062-710-9161)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공고(1차)

당 법인은 2023년 7월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20일자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7월 20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지평동)
청산인 김준영 (062-611-3611)

분할합병공고
(해산·인멸 및 합병공고)

주식회사 정도테크(이하 “정도”와) 대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대흥”)는 2023년 8월 23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거하여 “갑”과 “을”은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갑” 주식회사 정도테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54, 2층 4호
대표이사 박진우
“을” 대흥기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46, 1층 2동 1호 (원창동)
대표이사/사이사 장민아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지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지 평 376-6511
• 풍 알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